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수중발사계획을 청취하시고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사명령이 하달된 즉시 잠수함에는 전투정보가 울리고 함은 최대발사심도까지 신속히 침하하여 섬멸의 탄도탄을 쏘아올렸다.

잠수함에서 솟구친 탄도탄은 거대한 불줄기를 토하며 창공높이 날아올랐다.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 발사체계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리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열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식 수중발사체제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도 굴함없이 뚫고나아가는 주체조선의 불패의 기상인 양 추천하는 탄도탄의 비행운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주체조선의 강력한 핵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대단히 만족하시면서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한 국방과학부문과 군수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번 시험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우리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이 강화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나 마음먹은대로 밀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국



방과학부문에서 이룩한 이 경이적인 성과는 과학기술로 당중앙을 결사옹위하고 조국의 존엄을 빛내이려는 열렬한 총정과 고결한 당적량심을 지니고 나라의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온갖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와 어머니당에 드리는 또 하나의 고귀한 로력적선물로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핵공격수단들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함으로써 핵에는 핵으로 맞설것이라는 우리 당의 전략적기

도를 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식 수중발사체제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를 과학적실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 당이 결심한다면 그 어느때건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들에게 핵타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력강화의 발걸음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단행하고 귀항하는 전략잠수함을 항구에서 맞이하시고 시험발사에 참가한 국방과학전사들과 해군장병들과 함께 력사적인 성공의 날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사랑과 혈연의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기쁨도 시련도 이겨내며 헤쳐온 탄도탄개발의 고심참담했던 나날들이 눈에 밝혀와 장내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고 이들을 바라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눈가에도 뜨거운것이 젖어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의 대성공은 주체조선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당에 대한 불타는 총정과 애국의 결정체이며 고귀한 땀과 지혜, 정력과 재능의 산물이라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면서 나라의 국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헌신분투하고있는 이런 미더운 애국자들이 있기에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조국이 더욱 존엄 높고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이라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주체 105 (2016)년 4월 26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개회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의 위력이 최고의 경지에서 과시되고 온 나라 천만군민의 총정의 70일전투가 결속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도당위원회사업을 총화하고 당지도기관과 당 제7차대회 대표자선거를 위한 도당대표회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도당대표회들에서는 당 제6차대회이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도당위원회가 걸어온 승리적로정을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당지도기관을 새로 선거하였다.

도당대표회들에서는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당의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여 주체조선의 존

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하였다.

도당대표회들에서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불타는 총정과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한 일군들과 당원들을 당 제7차대회 대표자, 방청자로 선거, 추천하였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휘날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철석의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2016년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것을 결정한다.

《제도전복》, 《체제붕괴》를 망상하는 적대세력의 집요하고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자위적수단을 천백배로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수호의 길이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있든, 그것이 개별목표이건 집단목표이건 침략세력을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징벌할수 있는 장비개발과 보유는 공화국의 드림같은 국가방위의지이다. 조국의 바다가 격랑을 일으켰었다.

최근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 시험발사가 있었다. 작년 5월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함내소음준위, 발사반충력, 탄도탄의 수면출수속도, 자세각 등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가 최신군사과학기술적요구에 완전히 도달하였다는것이 검증확인된데 이어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발사체계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리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열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된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식 수중발사체계의 믿음성이 완전히 확증, 공고화되었으며 모든 기술적지표들이 주체적인 수중공격작전실현을 위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시켰다.

그날 현지에서 시험발사를 지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력한 핵공격의 또 다른 수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해군의 수중작전능력이 비상히 강화되었다고, 이제는 남조선괴뢰들과 미제의 뒤통수에 아무때

바다는 격랑을 일으킨다

나 마음먹은대로 멸적의 비수를 꽂을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핵공격수단들을 끊임없이 강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총대진하여 핵에는 핵으로 맞설것이라는 우리 당의 전략적기도를 과학적실천으로 받들며 그 어느때건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들에게 핵타격을 가할수 있게 핵무력강화의 발걸음을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 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철의 의지, 정력적인 령도의 자랑찬 결실이다. 군대는 총과 같은 전투기술기재를 가지고 상대와 싸우는 무장집단이다. 최첨단과학기

술의 집합체인 현대적무장장비들이 활용되고있는 현대전에서는 사상정신력과 함께 군사기술면에서도 상대를 결정적으로 압도할수 있게 준비되어야 한다.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위력한 주체무기, 주체탄을 개발보유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 지도에 의하여 조선인민군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은 현저히 높아지게 되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활동하면서 작전시 상대의 수중선단이나 함선에 대해 불의적으로 기습공격하는 전투함선이다. 잠수함은 오늘날 현대전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

로 핵동력과 로켓을 설비하면서 핵무력의 3대구성요소의 하나로 되고 해군의 기본골간무력으로 되었다.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상대의 핵공격기지나 지휘중추 등 중요 전략대상들을 공격하는 위력한 타격수단의 하나이다. 공화국의 해군이 전략잠수함에서의 탄도탄수중발사기술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훌륭히 완성함으로써 이제는 공화국의 령해는 물론 임의의 수역에서 도전세력을 제압할수 있는 위력한 핵타격수단을 가지게 되었고 핵에는 핵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공화국의 결심과 의지가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핵공격능력이 저들만의 힘이 아

타격전, 단기결속전으로 수행되고있다. 현대전의 양상과 요구에 맞게 국가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최첨단무장장비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학기술적으로 론박할 여지없는 우리의 타격수단들의 첨단수준의 높이는 우리 국력의 높이이고 우리 조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과 주체탄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더 많이 개발 생산하도록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었다.

도전세력의 상용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에는 자기 식의 전쟁으로, 핵무력에 의한 침략전쟁에는 자기 식의 핵타격전으로, 싸이버전에 의한 공격에는 자기 식의 명활한 싸이버전으로 최후멸망을 안기자는것이 공화국의 배짱이고 의지이다. 수중에서 령해상공으로 기세차게 솟구쳐오른 잠수함탄도탄 시험발사를 놓고 남조선호전세력은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이 발사하는 탄도탄을 효과적으로 방어할수단은 별로 없다.》고 자인하였다. 미국과 추종세력이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를 거들며 《도발》이다, 《유엔결의위반》이다 설쳐대며 《대응》을 운운하여도 강력한 타격수단들이 다발적으로, 련발적으로 개발되어 침략의 아성을 정조준하고있다. 멸적의 주체무기가 지키고 섬멸의 주체탄이 솟구쳐오르는 조국의 푸른 바다는 격랑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장철수



조국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

땅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며

지난 3월 어느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땅크병정기대회—2016》을 보시었다. 그날 땅크병부대, 구분대들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높여 기동타격부대들의 실전능력을 더욱 완성하는데 목적을 둔 경기를 보신 원수님께서 땅크는 인민군대의 기상이라고 하시면서 땅크병싸움준비에서 나서는 과업을 밝혀주시었다.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땅크전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할데 대한 문제, 산악과 진펄, 강하천을 단숨에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땅크운전기술과 사격술을 부단히 높이는것과 함께 승조협동동작을 완성할데 대한 문제, 민승승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 땅크병종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군대에서는 그 어느 훈련도 소홀히 하지 말고 병종, 전문병훈련을 비롯한 싸움준비완성에 비약의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해에 즈음하여 인민무력부를 축하받으시었을 때였다. 지난해 인민군대가 거둔 성과를 총화하시고 올해 인민군대앞에 나서는 중심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면서 그이께서는 강성국가건설에서 인민군대가 하여야 할 과업에 대하여서도 밝히시었다. 올해에도 인민군대가 부강조국건설의 주력군,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신 그이께서는 인민군대는 항상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의 구호를 들고 힘찬 공격전을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마다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끼며 군인정신, 군인본때, 군인기질로 온 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었다. 인민군대가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높이에서 실현해나갈데 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문명강국건설의 뿌리가 되고 돌격대가 될 때 인민의 재부가 차넘치고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더 높이 울리게 될것이라는것이 그이의 뜻이었다. 본사기자

불변의 진리, 승리의 길 (2)

강병은 선군의 길에 있다

에나지금이나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다름이 없지만 국력과 존엄은 오늘날 최경지에 이르렀다. 강국의 징표로 되는 핵을 보유하고 국력의 종합체로 보는 위성을 개발발사하고있다. 이제는 침략세력이 지나간 세월 핵으로 위협공갈하던 때가 영영 막을 내리고 무변광대한 우주도 이제 더는 대국들만의 독점세계가 아니다. 우주만리에 조선의 자리길이 있다. 이 기적, 이 현실은 력사가 준 우연도 아니다. 민족의 운명과 지위에서의 극적인 전환은 총대중시, 군사중시를 국사중의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총대의 힘으로 천사만사를 해결한 위대한 선군의 덕이다. 국력중의 국력은 강한 군력이란것은 력사가 새겨주는 교훈이고 철리이다. 약자는 주먹으로 눈물을 흘치게 되는것처럼 나라가 힘이 약하면 남에게 굴종하게 된다. 우리 민족의 과거사를 보아도 고구려가 동방의 천년강국의 위용을 펼쳤던것은 군력이 강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조선봉건왕조시기 집권세력이 사대와 외세의존을 국책으로 삼고 군사를 홀시한탓에 국력은 나날이 쇠약해졌다. 1898년에 조선을 편담한 로씨야가 미하일롭스키가 탐방기에 쓴것처럼 호미와 화승총, 이것이 봉건수레를 끌고가는 당시 조선의 모습이었다. 자기 힘을 키울 념을 하지 않고 허송세월한 봉건통치세력의 무능통치에 의하여 나중에는 국권이 일제의 총칼에 강탈당하고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제기 총대이자 민족의 운명이 되고 자주이라는 철리를 밝히시

도하시며 조국수호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침략군의 비행기들과 순항미사일, 항공모함에 대항할 대공무력과 방위수단이 미약한데 78일간의 전쟁에서 무차별공습을 받고 혹심한 재난을 당한 전 유고슬라비아의 비극, 미국의 침략전, 정복전으로 두차례나 황폐화된 이라크의 운명, 불모지로 화한 아프가니스탄의 참상과 어떤 침략에도 대처할수 있는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 핵억제력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군사강국이 된 공화국의 현실에서 사람들은 사랑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총알이 없으면 살수 없다고 하시며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의 비범성을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걷고 걸으신 선군의 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에 의하여 즐기게 이어지고있다. 선군은 우리의 자위과 존엄이며 생명이라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선군으로 애국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지난해 8월 조선반도에 닥쳐왔던 위험천만한 사태가 평정된것도 무진강강한 자위적억제력과 선군, 전민을 조국수호에 불려일으킨 경애하는 원수님의 견결한 조국수호의지와 탁월한 령군술과 지략,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안아온 승리이다. 철령과 오성산으로부터 서남전선의 최남단 열점지역에 이르러까지 조국방선초소를 쉬임없이 찾으면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도록 하시고 국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으시여 위력한 전투함선들과 전술유

도무기체계를 비롯한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도록 하시는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나라의 군력이 백방으로 다져지게 되었다. 수조년까지 보유하고 침략세력에 대하여서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임의의 지점에서 임의의 시각에 최후멸망의 불벼락을 안길수 있는 위력한 핵보검을 더욱 튼튼히 틀어쥐게 되었다. 미국과 적대세력이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와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거들며 《제재결의》를 조작하고 술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지금의 일촉즉발의 위기는 핵보유를 선택하고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온 길이 얼마나 선견지명하며 천만면 정당하였는가를 증명하고있다. 지난해 3월 인민군대의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국가방위를 위하여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선군의 위력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조선이라는 실체는 드넓은 대양 한복판으로 파감히 전진하는 거대한 전함에 비유된다. 항해의 앞길에 험산출기와 같은 사나운 파도가 길길이 솟구치며 막아서도 갈기갈기 쳐갈기며 용용히 돌진하고있다. 행성의 어지러운 광풍이 몰아쳐와도 선군으로 마련된 강력한 힘을 가진 정의의 조선은 반드시 최후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선군은 조선의 영원한 존엄이고 승리와 변명이다. 본사기자 리 설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축복 받은 직포공영웅

지난 3월 8일, 국제부녀절을 축하하는 뜻깊은 무대에 나선 로력영웅 문강순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꽃같은 처녀시절부터 직포공으로 일해오면서 해마다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름난 로력

공장에서 소문난 혁신자

직포기들이 《바다》를 이룬 드넓은 생산현장에 들어선 기자가 어디로 가야 그를 만날지 몰라 서성거리고있는데 직포직장 직장장 박금순이 기운차게 돌아가는 직포기들 사이를 재빠르게 오가는 한 여성종업원을 가리키며 문강순동무라고 알려 주었다. 기대들사이를 날렵하게 오가는 그의 일숨씨는

혁신자. 은 나라가 아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로력영웅답게 만리마를 탄 기세로 혁신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고있는 그를 만나보고싶어 얼마전 기자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았다.

불수록 경탄을 자아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금순직장장은 문강순동무는 작업시간에 환순간도 헛눈을 팔 때가 없다고, 생산계획을 넘쳐수행하기 위해 바빠 뛰어다니다가 도 갖 들어온 로동자들이 기대를 잘 다루지 못해 안타까워할 때면 만사를 제치고 달려가 차근차근 배워준다고 말하였다. 때마침 그가 잠깐 걸음

을 멈춘 틈에 가까이 다가간 기자는 기대의 동을 울 부르기도 하듯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누었다. 했던만 문강순은 일손을 멈추지 않은채 머리만 돌려 눈인사를 했다. 쌍가풀진 눈가에는 광해를 구하는 미소가 어려웠었다. 집단의 사랑을 받는 혁신자가 역시 달랐다.

문강순영웅은 올해 1년간생산계획을 3월 6일까지 완수했다고 한다. 그가 속한 직장도 올해 상반기 1년도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넘쳐 수행하였다. 연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는데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는가고 묻는 기자에게 문강순은 평범한 자기를 운 나라가 아는 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갈

은 은정에 보답하자면 아 직도 멀었다며 웃었다.

첫사랑을 속삭이던 그때처럼

《시간을 내지 못해 미안합니다. 세대주에게 가면 더 잘 이야기해줄겁니다.》 사장절반, 부락절반인 문강순의 말을 들으며 실망감도 없지 않았으나 이들부부의 애뜻한 정이 어려와 기자는 한 공장에서 과학기술발전과 부원으로서 일하는 그의 남편(김혁)을 만났다. 김혁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한 김혁은 4년전에 문강순과 결혼하였다고 한다. 그에게서 들은 문강순과의 연애타미 흥미있었다. 문강순이 마음에 들어 그가 처음 찾아갔을 때 처녀에게서 받은 대접은 《시간이 없어 그러니 미안하다.》는 《태대》였다고 한다. 며칠후 다시 찾아갔으나 처녀의 심장의 빛장을 열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김혁은 문강순을 만나 《로력영웅 문강순을 찾아온것이 아니다. 처녀시절에 더 많은 일을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동무의 고상한 정신세계에 감동되어 찾아왔 다.》고 진정을 토로했다.

에도 어린 생명의 소생을 위해 병원의 의사, 간호원들이 떨쳐나 온갖 정성을 기울이었고 귀한 약재와 보약들이 아기의 몸에 흘러들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문강순녀생의 귀여운 아들이 지난 3월 8일 국제부녀절을 축하하는 무대에서 노래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를 불러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김혁은 언제나 안해와 함께 퇴근을 한다. 그럴 때면 첫사랑을 속삭이던 날날처럼 행복에 젖어 불 밝은 거리를 끝없이 거니는 이들부부이다.

평범한 한 여성로동자에 게 돌려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고 기념사건들에게도, 선군시

대 공로자로 내세워준 값 높은 부름과 사랑의 금반지, 귀한 보약들에게도 어려웠었고 조선청년친선대표단의 한 성원으로 외국방문의 길에 올랐던 나날에도 어려웠었다. 문 강 순 은 아버지장군님께서 로력영웅으로, 선군시대 공로자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훌륭한 동무라고 하시며 그에게 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시계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러시고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성장한 그에게 창천거리의 공결같은 새 집도 안겨주시고 몸소 친어머님이 되시어 새집들이까지 축복해주신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순간도 잊지 못하고있는 문강순영웅이다. 이렇듯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에 문강순영웅만이 아닌 온 나라의 여성들아니 온 나라 인민이 안겨 살고있는것이다. 오늘도 문강순영웅은 더 많은 찬을 짜는것으로써 받아안은 사랑과 은정에 보답하기 위해 온넋을 불태우고있다. 자기가 짜는 한필한필의 찬이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수만 있다면 열백발을 지새워도 힘들지 않다는 그의 모습에서 강성국가건설을 위해 만리마를 타고 내달리는 이 나라 여성들의 아름답고 강직한 모습을 엿볼수 있었다. 본사기자 강류성

장애자가 공훈예술가로

얼마전 TV를 통하여 조선장애예술협회 예술소조 공연이 방영되었다. 이들의 공연은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시력장애자, 청각장애자, 지체장애자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되고 능란한 기악연주춤씨, 황홀한 예술의 세계에 이 끌어가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들...



리일으켰다. 무릇 정상사람들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것이 예술이라고들 한다. 더구나 시력장애자로서 훌륭한 가야금연주기를 발휘한 김명숙녀성이 받아안은 태대같은 은정은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주고있다. 3살때 두눈을 잃고 5살 나던 해에 아버지가 만들어 준 작은 가야금과 첫 인연을 맺은 때부터 방송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가야금을 제법 솜씨있게 다루어 《신동》으로 불리운 김명숙, 그의 연주기량은 당시 가야금명수로 널리 알려졌던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 민족음악학부장

10대에 벌써 어른들도 힘에 부쳐하는 《가야금산조》 전곡에 정통하고 가야금연주에 두손연주법을 처음 도입하였을뿐아니라

족악기를 가지고 전통음악 외에 연주할수 없었던 기성관념을 깨고 현대음악을 자유자재로 연주하여 예술계에 파문을 일으킨 김명숙이었다. 나 어린 그의 남다른 예술적재능을 소중히 여기시고 높이 내세워주시신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었다. 1968년 11월 나라일에 그 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14살 나던 김명숙의 가야금연주를 보아주시는 아버지가 수평님께서 앞 못 보는 소녀가 채치 있게 손을 놀리는것이 기록 하다고, 이 학생의 연주법으로 세명이상이 연주하면서 관현악물림처럼 들릴것이라고 파분하게 치하시면서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에서 그의 재능을 더 활짝 꽃피워주도록 은정 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나 어린 소녀가 눈을 보지 못하는것이 못내 가슴이 쓰시여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

시고 고급안경도 보내주시는 수령님이 시었다. 위 대 한 장군님께서 는 평양음악무용대학(당시) 가야금연주자로 있는 김명숙선생이 민족기악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시며 공훈예술가의

명예칭호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김명숙선생은 지난해에 조선장애자교류단의 한 성원으로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였다. 교마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라를 활짝 펼쳐가는 이들의 공연을 본 수많은 외국인들은 《장애자들이 어떻게 이렇듯 훌륭하게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출수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다. 육체가 정상인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어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조선의 우월한 장애자 보호정책과 진정한 인권이 보장되는 조선의 현실을 보았다.》고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자고로 장애자라고 하면 불행의 대명사로 되어왔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장애자들이 사회적으로 고사하고 극심한 차별과 따돌림속에 폭력과 학대의 희생물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을 때 인간존중,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정치가 꽃피어나는 공화국에서는 김명숙녀성만이 아닌 모든 장애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세상에 부럼없는 삶을 누리가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김명숙선생은 긍지높이 말한다. 장애는 있어도 불행을 모르는 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자기는 비록 앞을 보지 못해도 심장으로 행복을 노래한다고. 본사기자 홍범식



하늘같은 사랑의 끝은 어디

문 강 순 영 우 의 정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고 기념사건들에게도, 선군시

평범한 한 여성로동자에 게 돌려주시는 하늘같은 은정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뵙고 기념사건들에게도, 선군시

대학생이 된 리광혁, 장국화학생들

지난 4월 1일 개학날을 맞으며 장철구평양공업종합대학에 신입생들이 입학하였다. 만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는 몇해전 남조선당국의 유인람치행위의 희생물이 되어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구원되어 어머니조국에 돌아온 안근 리광혁, 장국화학생들도 있다. 공화국의 품에 안겨 평양금성제1중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리광혁학생은 장철구평양공업종합대학 봉사학부 호텔경영학과에 입학하였다. 기자와 만난 리광혁학생은 《학급동무들이 하나같이 좋다.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함께 토론도 하고 서로 배우고 배워주면서 재미있게 보낸다.》고 말하였다. 리광혁학생과 한달한시에 같은 대학 봉사학부 편의봉사학과에 입학한 장국화학생의 기쁨도 끝이 없다. 자 애 로 운 아 버 지 김정은원수님의 품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사람 못살 남쪽땅에 끌려가 인간이하의 것은 천대와 멸시속에 시들고있을것이라고 말하는 장국화학생이다. 장철구평양공업종합대학의 박철우, 김철산교원들은 《은혜로운 조국의 품에 다시 안겨 대학에 입학한 리광혁, 장국화

학생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받은 학생들이다. 이들이 강성국가건설의 쓸모있는 인재로 자라도록 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다 바쳐가겠다.》고 말하였다. 지금도 리광혁, 장국화학생들은 대학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맞은 뜻깊은 태양절날을 대학생활들과 함께 즐겁게 보낼것을 기쁘게 추억하고있다. 장국화학생이 태양절날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가니 온 가정이 친철욱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날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노래도 부르고 영화도 보고 식사도 함께 하였는데 국수맛이 정말 별맛이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리광혁학생도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의 정이 그리웠던 자기를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고 친절하게 학습방조도 해주는 담임선생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며 눈물을 적시었다. 장국화학생은 말한다. 《병든 지식, 못난 자식일수록 더 따뜻한 품어안아주는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맑은 물, 흐린물 가리지 않고 품어주는 바다처럼 넓고 은혜로운 어머니 품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